

고려 강도궁궐의 위치와 범위 검토

이상준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국/문/초/록

강화는 비록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궁궐을 비롯한 여러 시설물이 즐비한 고려의 도성이었다. 하지만 도성의 핵심시설인 궁궐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세도성으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발현하지 못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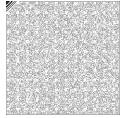
『고려사』에 의하면 강도궁궐은 개경궁성을 모방하였다고 한다. 이 사실을 전제한다면, 강도궁궐의 실체는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개경궁성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개경궁성의 특징은 도성의 남북중심 축선에서 서편으로 치우친 곳에 입지하고, 궁성의 동편에는 '동지(東池)'가 위치한다. 그리고 궁성의 중앙부에는 탁월한 고도의 구릉이 남쪽으로 돌출되어 있고, 이 구릉을 감싸고 두 줄기의 가지하천이 흘러 주류하천에 합수된다.

강화에서 이상 개경궁성의 특징들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곳은 관청리 '궁궐'일대이다. 이곳에서는 예로부터 많은 청자들이 수습되었다고 하며, 중앙부에는 탁월한 고도의 구릉이 남아있다. 이 구릉을 감싼 두 줄기의 하천은 남쪽으로 흘러 주류하천인 동락천에 합수된다. 한편 관청리 405번지 유적의 발굴조사 결과는 이곳이 연못이 있음을 추측케 한다. 그렇다면 이 유적은 궁궐의 동편에 입지하는 개경의 '동지'와 같은 성격의 유적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적도에서 확인한 대형도로는 개경도성의 남북방향 주간선도로에 비견된다. 그러므로 강도궁궐은 개경궁성과 같이 이 두 유구의 서편에 입지하여야만 한다. 그곳이 바로 '궁궐'인 것이다. 지적도에는 '궁궐' 일대에 호상(弧狀)의 도로에 의해 구획된 복주머니 형태의 평면이 확인되는데, 개경의 궁성모습과 흡사하다. 이 호상도로 내부에 궁궐 전각의 일부로 생각되는 관청리 659-2번지 유적이 위치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개경궁성의 특징, 고지도 및 지적도, 고고자료의 검토를 통해 얻은 결론은 강도궁궐이 강화를 관청리 '궁궐'일대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며, 그 범위는 상기한 호상도로의 내부라는 것이다.

주제어 강도궁궐, 개경궁성, 궁궐, 동지, 하천, 도로, 중심건축군, 사신사

투고일자 : 2014. 05. 13 | 심사일자 : 2014. 07. 10 | 게재확정일자 : 2014. 07. 29



머리말

고려 강도공궤⁰¹의 위치와 관련해서는 일찍이 이병도 선생이 강화 북산의 옛 이름이 송악산이라는 점과 강화에 남아 있는 성곽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조선시대 행궁과 유수부 동헌이 있었던 현재의 '고려궁지'를 고려궁궐터라 하였고,⁰² 이는 비판없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수차에 걸친 사적 '고려궁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가 보고되면서 강도공궤가 현재의 관정리 일대라는 사실은 논증되었지만, 정확한 위치와 성격에 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우선 김창현은 강도공궤가 송악산 아래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 일대에 자리잡은 것은 분명하나, 사적 '고려궁지'가 협소하다는 점을 들어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는 제1정전이 자리 잡았던 곳이며, 그 남쪽과 서쪽의 궁궐일대까지 궁궐의 범위로 보았다. 그러면서 발굴에서 고려궁궐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되지 않음은 경사지를 평탄화 하면서 선대유구를 삭평하고 기초를 조성하였기 때문으로 보았다.⁰³ 윤용혁은 강도공궤의 위치는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사적 '고려궁지'의 지형과 입지가 개경궁궐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고려궁지' 외에는 왕궁의 위치를 찾기 어렵다고 하였다.⁰⁴ 이후 씨는 현재의 '고려궁지'는 건물의 가용면적이 너무 좁으며, 고고학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현재의 '고려궁지'는 조선궁전지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자신의 이전 견해를 일부 수정하였다.⁰⁵ 최근 이희인은 개경궁성과 진도용장성을 예로 볼 때 고려의 궁궐은 산아래 낮은 구릉에 입지하며, 이 구릉에 흙을 돋아 축대를 설치한 뒤 전각을 차례로 배치하는 특징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강화의 경우 완만한 구릉으로 이루어진 '고려궁지' 서쪽과 서남쪽일대가

지형적인 면에서 산중턱에 위치한 사적 '고려궁지'보다 궁궐의 입지로서 더 적합하다고 하였다.⁰⁶

이상의 선학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고려궁궐은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를 포함한 보다 광역의 규모이거나, 사적 '고려궁지'를 아예 고려궁궐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며, 그 위치는 사적 '고려궁지'의 서남편에 펼쳐져 있는 '궁궐'일대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가 궁궐이 아니라는 점은 고고학적 현상이나 지형적인 검토를 통해 설명할 수 있으나, 왜 궁궐 일대가 궁궐터로 비정될 수 있는지는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고는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타개해 보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러기 위해 먼저 강도가 개경을 본뜬다는 관련 기록에 근거하여 개경궁성의 지형적·구조적 특징을 추출해 보고, 이 특징들을 강도에서도 찾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강화의 고지도와 1911년 작성된 관정리 일대의 지적도에서 하천과 도로 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최근 축적된 고고자료에서 각 유구의 성격이 무엇인지, 궁성과 관련된 유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강도공궤의 위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해 보고자 한다.

강도궁성 관련자료의 검토

1. 개경도성과 궁성의 특징

개경의 지형적 특징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라는

01 기록상 강도궁성과 관련된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강도에도 개경과 마찬가지로 궁성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강도의 궁전이 개경의 이름을 그대로 모방하였고, 개경 궁성의 남문인 승평문과 권동문 같은 성문이름이 기록에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궁성'이란 단어를 명시하지 않은 채 궁성의 성문 이름만 기록하고 있음은 궁성을 궁궐과 같은 개념으로 본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강도궁성을 강도궁궐로 기술한다.

02 이병도, 1948,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03 김창현, 2005, 『고려시대 강화의 궁궐과 관부』 『국사관논총』 106.

04 윤용혁, 2002,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 정비』 『역사와 역사교육』 7, 웅진사학회.

05 윤용혁, 2010, 『고려도성으로서의 강도의 체문제』 『한국사연구』 40, 고려연구회.

06 이희인, 2012, 『고려 강도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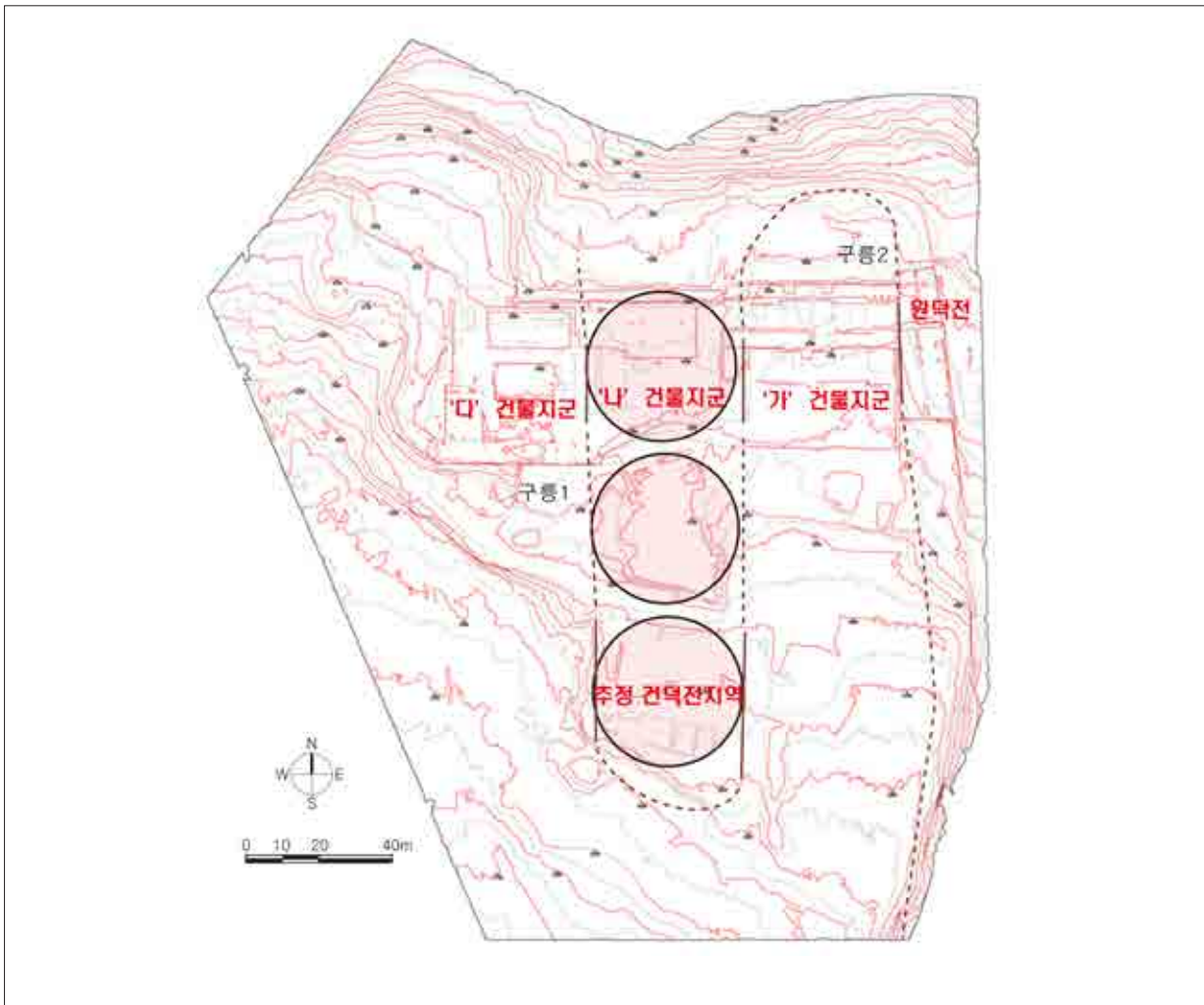
【 그림 2 】 개경도성의 도시시설

다수의 건물로 형성된 소위 중심건축군이 위치한다(그림 2).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애초 궁성 내에는 2개의 자연구릉이 있었으나, 궁성 내 시설물을 축조하면서 서쪽의 작은 구릉을 삭평하고 중앙부에 하나의 구릉만 남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¹⁰ 궁성 내 주요 건물은 남겨진 구릉과 삭평된 구릉의 상면에 축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무리 축대를 견고

하게 쌓고 흙을 단단하게 다져도 자연적으로 형성된 풍화암 반층보다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¹ 이는 평탄지의 확보가 어려운 지형적 여건 때문으로도 볼 수도 있으나, 정전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의 독보적 고도를 가진 중심부 구릉만을 남겨 놓으려는 의도로도 해석된다(그림 3).

10 궁성 내에는 원래 2개의 자연구릉이 남북방향으로 돌출 형성되어 있었다. 하나는 회경전-장화전-원덕전의 소위 '중심건축군'이 위치한 지역이고(구릉2), 다른 하나는 '나' 건물지군에서 추정 건덕전까지 이어지는 구릉이다(구릉1). 구릉1의 상황은 조사지역 북면 건물지군의 동서방향 토층에서 확인된다. 이곳의 풍화암반층(원지반)은 '가~나' 건물지군 중앙부의 '나' 건물지군을 정점으로 좌우로 그 높이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며, '나' 건물지군의 경우 원지반인 풍화암반층을 일부 삭평하여 평탄면을 조성한 뒤 축조하였다. 이에 반해 '가' '다' 건물지군은 곡부를 메워 '나' 건물지군의 평탄대지와 같은 높이로 조성하였다. 한편 '가' 건물지 동단에서 원덕전 쪽으로 가면서 풍화암반(구릉2)의 높이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구릉2의 원지반인 풍화암반층은 원덕전을 포함한 중심건축군의 대지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구릉의 흔적은 조사지역의 3D 스캔 데이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스캔 데이터에서 확인되는 등고선을 통해 '나' 건물지군과 관련된 구릉1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고, 구릉1은 동북쪽으로 돌아 구릉사이의 곡부를 형성한 뒤 원덕전의 뒤면에서 남동쪽으로 틀어 구릉2로 연결되고 있다.

11 박성진, 2011, 「고려궁성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고려수도 개경과 동아시아의 도성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 그림 3 】 개경궁성 서편지역 지형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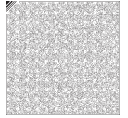
이 중심건축군 서편에는 경령전을 비롯한 많은 전각들이 축조된 사실이 최근 발굴결과 확인되었는데, 주요건물은 모두 '口'자 형태로 회랑과 축대에 의해 에워 쌓인 구조였다.¹² 그리고 중심건축군 서편에는 좌춘궁을 비롯한 다수의 건물이 입지하였고, 그 외곽에는 황성내 원지인 동지가 조성되어 있었다.¹³ 궁성내부로는 송악산에서 발원한 광명천이 궁성의 북서편에서 동남편으로 흘러 주류 하천인 배천으로 흘러든다.

황성과 연결된 주간선도로는 도성을 남북방향으로 가로

지르는 남북도로이다. 이 도로는 황성 동문인 광화문에서 동쪽으로 난 관도를 따라 이어지다 90°로 꺾여 나성 남문인 회빈문(고남문)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은 도로 체계는 고대도성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황성 남문에서 남북대로가 직선으로 이어지는 구조와 차이가 있어 고려도성만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도로는 나성 서문인 선의문(오정문)에서 나성 동문인 송인문까지 이어지는 동서방향 주간선도로이다. 이 도로는 도성의 중심부(현재의 남대문)에서 남

12 이상준, 2009, 「개성 고려궁궐(만월대의 발굴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한국중세사학회 제74회 연구발표회.

13 리창연, 1999, 「동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112호.



북방향 도로와 만나 교차하게 된다. 결국 이 두 간선도로가 도성 내부를 십자형태로 가르면서 도성의 축을 형성하였고, 이 도로를 중심으로 도성의 주거공간이 형성되었다(그림 2).

그렇다면 이러한 개경 도성과 궁성의 특징은 강도에 적용되었을까? 결론적으로 적용되었다고 본다. 물론 전체적인 플랜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지형적인 문제가 있었으므로 적어도 강도를 개경과 같이하려는 노력은 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주지하다시피 강도 천도는 당시 실권자인 최우에 의해 급하게 단행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고종은 강도에 도착하였으나 머물 궁궐이 없어 객관에 머물렀다.¹⁴ 이때 최우는 두 영군을 풀어 궁궐을 짓기 시작하여 2년 후인 고종 21년에 강도 궁궐의 조영이 완성된다.¹⁵ 다시 말해 급하게 천도하다보니 왕이 머물 궁궐이 없어 단기간에 궁궐을 완성하였다는 것인데, 단기간에 궁궐을 짓기 위해서는 다른 궁궐을 벤치마킹하여야만 했고, 그 대상이 바로 자신들의 터전이었던 개경궁성이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된다. 이와 관련하여 “……때는 비릇 초창기였으나 무릇 궁정, 궁전과 절의 이름이 모두 송도를 모방하고 팔관, 연등, 행향도량은 한결같이 구식에 의하였다”¹⁶고 한 점 등이 바로 강도를 개경과 같이하려는 강한 의도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¹⁷

다른 한편으로 개경도성은 당시의 시대이념이었던 풍수에 입각하여 입지하였다고 한다.¹⁸ 강도도 도성의 위치를 정함에 앞서 풍수에 따라 사신사와 하천이 어떻게 발달되었는지를 살폈을 것이다. 실제 강도도성으로 인식되는 북산(송악산)과 남산사이 공간의 지형을 검토해 보면, 개경과 비슷한 점이 많이 확인된다. 북산과 남산 외에 동은 건자산, 서는 고려산이 강도를 에워싸고 있다. 그리고 도성을 가로질러 서울

동류하는 동락천도 개경의 배천과 비견되는 것이다.¹⁹

2. 고지도 및 지적자료 검토

본고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1911년 작성된 관청리 일대의 지적도를 입수할 수 있었고, 이 지적도에서 관청리 일대의 지형과 하천, 도로 그리고 각 필지의 지목을 자세히 검토할 수 있었다.

먼저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일반적인 지적도와 달리 이 지적도에는 등고선을 표기해 놓았다는 사실이다. 희미하게 남아 있는 등고선을 서로 연결해 보면 궁궐 일대에 송악산에서 이어진 구룡이 남편 방향으로 돌출되어 있다. 후술할 하천의 흐름과 연관시켜 보면 이 구룡은 <그림 4>의 ②번과 ③번의 하천 사이의 공간에 펼쳐져 있다. 필자는 이 구룡이 개경궁성의 회경전-장화전-원덕전으로 이어지는 중심건축군이 위치한 구룡과 비견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 구룡상에 강도궁궐의 중심건축물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²⁰

다음으로 강화의 옛지도 중 강화산성 내에 하천의 흐름을 표기한 지도는 19세기 후반에 제작된 『강도부지도』(서울대 도서관)이다(그림 5). 이 지도를 검토해 보면 강화산성 내 하천은 모두 4개이다. 강화산성 서문 남쪽의 상수문을 통과하여 강화산성 남문 동편의 하수문으로 빠져나가는 동락천(그림 5의 ①), 그리고 문묘 앞쪽에서 시작하여 중간지점의 연못을 거쳐 동락천으로 합수되는 하천(그림 5의 ②), 송악산 남편자락에 위치한 객사 좌측에서 시작하여 남쪽의 동락천으로 합수되는 하천(그림 5의 ③), 그리고 남산에서 출수되어 북

14 『高麗史』卷23, 高宗世家 高宗 19年 6月.

15 『高麗史』卷23, 高宗世家 高宗 19年 6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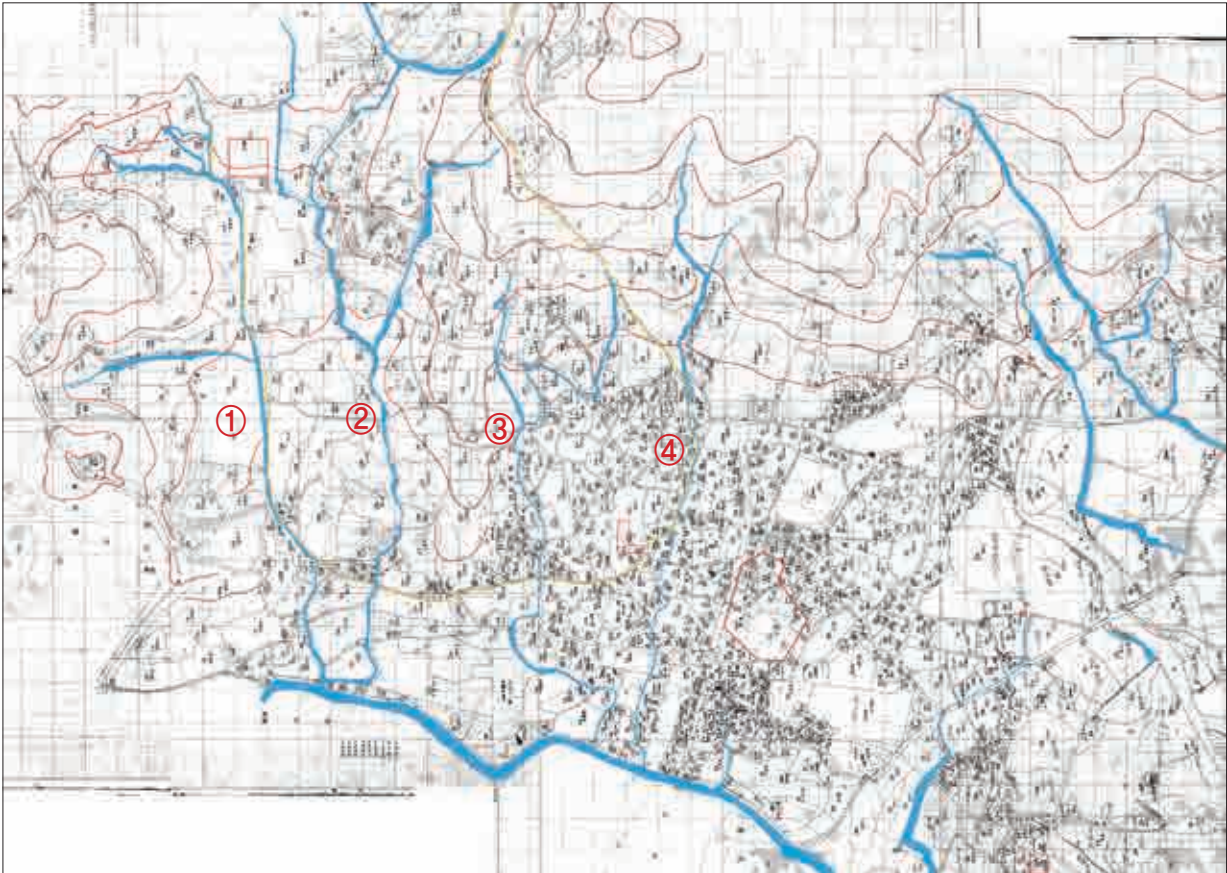
16 『高麗史』卷23, 高宗世家 高宗 21年 2月.

17 다만 여기서의 개경 모방이 단지 궁궐 건물과 절의 이름 그리고 국가 행사에서의 의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경의 입지와 궁궐의 공간구조까지도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본고에서는 도성의 입지와 궁궐의 구조까지도 포함한 모방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18 한국사연구회, 2003, 『개경의 풍수』 『고려의 황도 개경』.

19 김기덕, 2009, 『강도궁궐의 입지와 개경궁궐의 풍수 비교』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보고서』, 강화군·강화문화원.

20 관청리 일대의 정밀지표조사 결과 예로부터 이곳 일대에서 고급정자가 많이 출토되었다고 한다(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9,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일원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강화고려궁지 학술조사보고서』, 강화군·강화문화원).



【그림 4】 관청리 일대 등고선 표시도

으로 흘러 동락천으로 합수되는 하천(그림 5의 ④)이 그것이다. 이 하천들 중 (그림 5)의 ②번과 ③번 하천은 동락천 북편의 강도궁궐이 위치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관청리를 관통하여 남북방향으로 흘러 동락천에 합수된다.

한편 개경궁성 내의 하천은 두 개이다. 하나는 궁성 북서편에서 남동편으로 흘러 신봉문과 구정 사이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광명천과 궁성 동편의 동지에서 남으로 흘러 내려오는 하천이다. 이 두 하천은 궁성 동남모서리 부분에서 'Y'상으로 합류하는데, 이 두 하천 사이 공간에 궁성의 주요 전각들이 위치해 있다. 이러한 하천의 흐름을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과 관련시켜 본다면, 자연적인 하천의 흐름을 고려하여 궁성을 입지시켰던지, 아니면 인공 하천을 만든 다음 궁성을 입지시켰다고 생각된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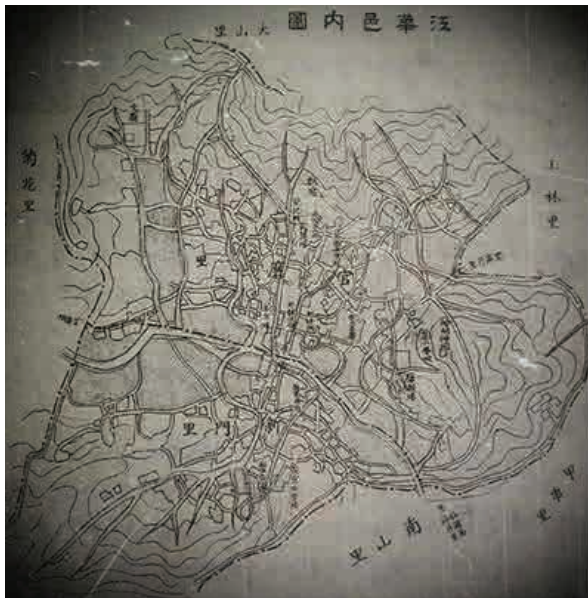
이러한 개경궁성 내 하천의 특징을 상기 강화 관청리의 하천 흐름과 비교해 보면 (그림 4, 5)의 ②번과 ③번 하천이



【그림 5】 강화부지도의 관청리 일대(하천 및 도로)



동락천과 만나 'Y'상으로 합류됨을 알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궁궐의 주요 전각은 상기 두 하천 사이 공간에 위치해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이와 같은 하천의 흐름을 『續修增補江都誌』의 강화읍내도(그림 6) 및 상기 지적도와 비교해 보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강화읍내도와 지적도에는 관청리 일대를 관통하는 하천이 2개 더 추가 되어 있다. 이는 『강화부지도』를 작성할 당시 소하천을 표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후 생성된 별도의 지류하천으로 판단된다(그림 7).



【 그림 6 】 속수증보강도지 강화산성 내부도

〈그림 5〉의 『강화부지도』(서울대도서관)에서 보듯이 관청리 일대에서 확인되는 주간선도로는 동문을 거쳐 관청리 남편을 동서로 가로 질러 서문으로 빠져나가는 동서방향 도로(그림 5의 ①), 남문에서 동락천을 건너 객사 앞쪽을 지나 북문으로 빠져 나가는 남북방향 도로(그림 5의 ②)다. 이 주간선도로 외에 객사 남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이어져 동문을 거쳐 동서방향 주간선도로와 합쳐지는 도로(그림 5의 ③), 그

리고 문묘앞쪽에서 남으로 이어지다 우측으로 꺾여 남북방향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도로(그림 5의 ④)다. 한편 지적도에서 확인되는 도로도 상기 고지도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몇몇 소로들이 확인되고 있으나 이는 하천과 마찬가지로 고지도를 작성할 당시 소로를 표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이후 생성된 별도의 도로로 판단된다. 다만 지목을 검토해 보면 상기 ②번 도로가 동락천을 건너는 지역의 좌측에 너비 30m 가량의 대형도로가 표기되어 있는 점이다(그림 7, 그림 12). 이 대형도로에 대하여는 다음 장에서 검토해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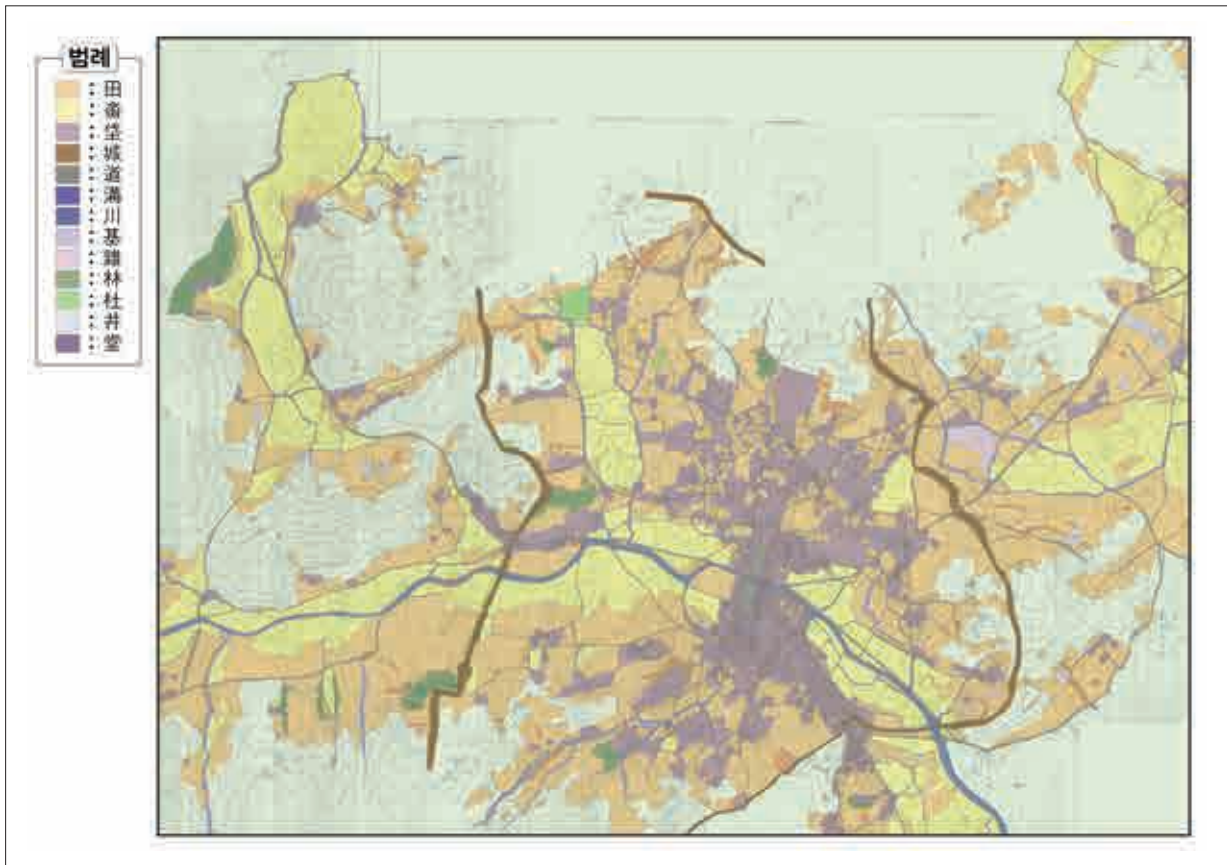
한편 이 도로 주변에는 주거공간이 넓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장비에 의한 대규모 지형변화를 수반되지 않은 20세기 초까지 큰 지형적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주거가능 지목인 대지와 전을 표시해 보면 〈그림 7〉과 같다.²¹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장 넓게 형성된 주거지역은 동락천 북편의 현재 관청리 일대, 건자산 서편과 북편, 그리고 동락천 남편의 신문리와 남산리 일원이며, 이 중 대지가 가장 밀집한 곳은 관청리를 중심으로 〈그림 5〉의 도로② 좌우측 공간으로 파악된다.²²

3. 고고자료 검토

지금까지 강화도에 대한 지표조사는 수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2009년에는 관청리 일대를 중심으로 강도공궐을 찾기 위한 정밀한 지표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조사는 관청리 일대를 7개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이중 강도의 공궐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지점은 1구역, 2구역, 4구역이다. 1구역은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가 위치한 곳으로 이곳은 범위가 협소하고 지형적 여건과 개경의 도성구조로 보아 공궐의 중심영역에서 벗어난 후원의 영역이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2구역은 4개 지점으로 구분하여 조사되었는데, 이 중

21 이 지적도상의 대지와 전이 고려 당시에도 주거공간으로 활용되었을 개연성이 크다.

22 이와 관련하여 고려당시의 주거 밀집 지역을 추론해 볼 수 있는 자료는 고려사 지의 화재 관련 기사이다. 고종 21년(1234) 정월과 3월에 불이 났고, 대풍으로 궐남 마을 수 천호가 각각 연소되었다고 하며, 동왕 23년 3월 시가 남쪽 마을 수백호가 불탔고, 동왕 32년 3월 건자산 북리에 불이 나 민가 800여호와 연경궁, 흥왕사 등이 연소되었다. 동왕 38년 3월에는 누교 북쪽 마을에서 불이 나 200여호가 불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궁궐 남쪽과 건자산 북쪽에 대규모 주거공간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밀집도가 대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락천 위에 놓여 있었던 누교의 북쪽에 주거공간이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해 준다.



【 그림 7 】 관청리 일대 지적도(1911)

라지점은 현재 '고려궁지'에서 강화산성 북문으로 오르는 도로의 남서쪽에 해당되는 곳으로 현재 지명이 궁골이다. 완만한 경사면의 경작지와 넓은 평탄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경작지는 대부분 원지형을 유지하고 있으며 평탄대지는 주거 밀집지역으로 오래 전 건물이 들어서 원지형의 훼손이 크게 되지 않았다. 지표상에서 고려-조선시대 유물이 일부 수습되었으며, 과거 이 주변에서 많은 청자편이 출토되었다는 주민들의 제보 등으로 미루어 이곳이 궁궐의 일부였다고 판단하였다.²³ 4구역은 건자산 일대로 북동사면과 남동사면에 평탄지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다.

한편 관청리 일대에서 실시된 발굴조사 중 강도궁궐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조사는 사적 '고려궁지', 관청리 405번지,

강화여고기숙사부지, 관청리 659-2번지, 관청리 162번지, 관청리 145번지 유적 정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는 수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1차에서 4차까지의 조사는 '고려궁지' 내에 있었던 조선시대 외규장각을 복원하기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의 조사였으나, 내심 강도궁궐과 관련된 유구가 확인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하지만 외규장각, 행궁, 재실과 관련된 유구만 확인되었고, 일부 고려시대 유물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주로 조선시대 유물이 출토되었다. 이에 대해 조선시대 건물을 축조하기 위해 고려시대 유구를 파괴하고 축조한 것으로 보기도 하나 이 보다는 애초 이곳에는 고려시대 유구가 없었다

23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9,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일원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강화고려궁지 학술조사보고서」, 강화군 · 강화문화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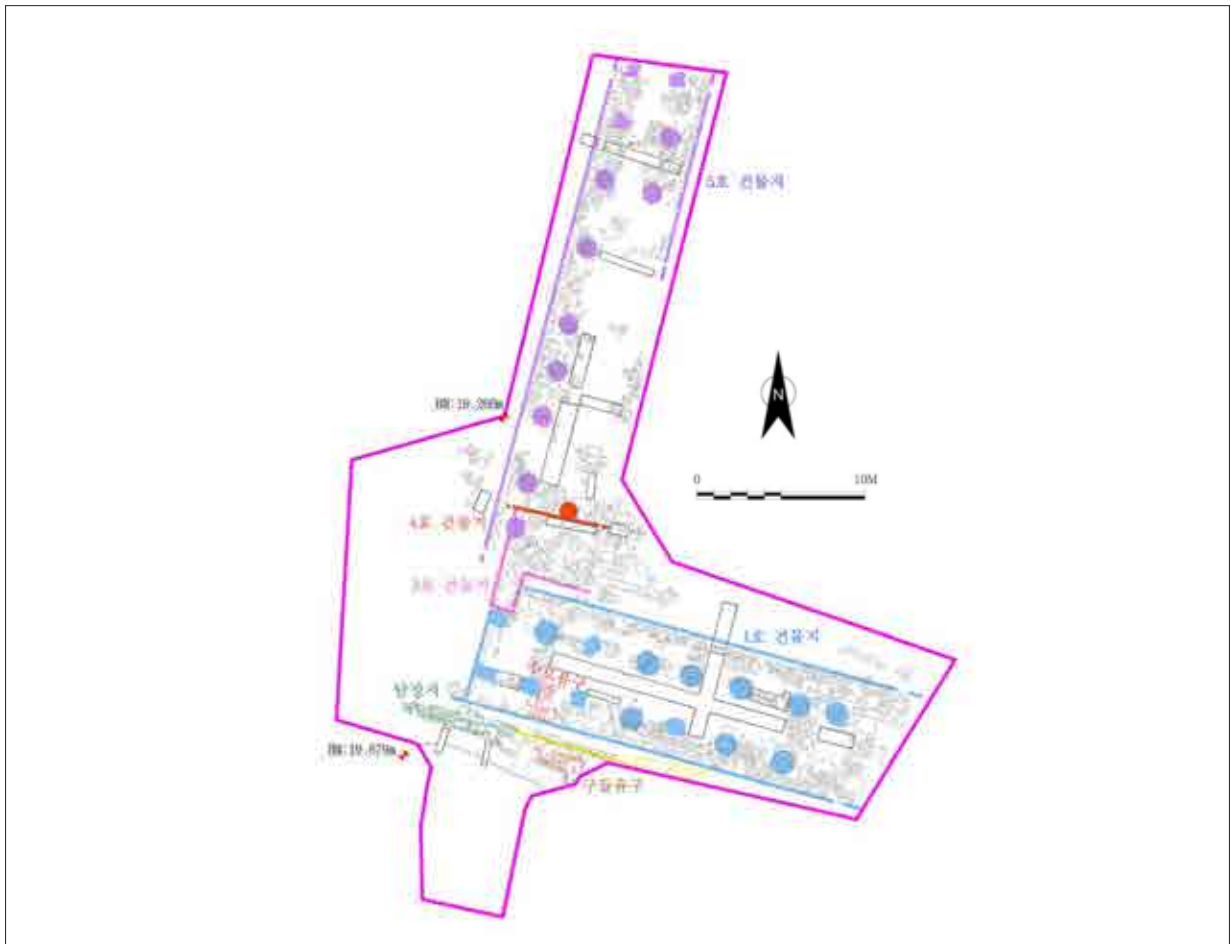
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⁴

관청리 405번지(용흥궁 주차장부지)는 조사지역이 사적 '고려궁지'의 남쪽이고, 동편에 강화성당이 위치한 구릉과 접하고 있으며, 조사대상부지가 넓은 점(13,975m²)에서 조사 착수 이전 강도공궤와 관련된 유구의 매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으나 조사결과는 조선시대 건물지, 배수로, 석열, 담장 등 모두 조선시대 유구만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고급청자들이 출토되기는 하였으나 대다수의 청자가 현재의 강화성당 위 구릉에서 흘러 들어온 것으로 파악하였

다. 한편 이 유적에서 주목되는 점은 2,000여점에 이르는 소 뼈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점이다.²⁵

강화여고기숙사 신축부지에서는 모두 3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으나 잔존상태가 좋지 않아 정확한 구조는 파악할 수 없다. 13세기대의 잔과 화형집시 등 고급 청자류와 소형 금동삼존불, 벼루 등이 출토되었다. 청자류는 골광없이 지표상에 얇게 묻혀 있었고, 금동삼존불상은 안정된 고려시대 문화층에서 출토되었다.²⁶

관청리 659-2번지 유적(성광교회-동문간 도로개설부지)



【 그림 8 】 관청리 659-2번지 유구현황도

24 한림대박물관, 2003, 『조선 궁전지 발굴조사보고서』;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조선궁전지Ⅱ』.

25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 『강화 관청리 유적』.

26 서경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강화군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개략보고서』.

에서는 모두 5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이 중 3기가 고려시대 건물지이다. 1호 건물지는 장축이 동-서방향이며, 정면 7칸(주칸거리 265-300cm), 측면 1칸(주칸거리 325cm)이며, 높이 130cm의 석축기단 위에 조성되었다. 초석은 직경 100cm내외의 적심석군 위에 정치되어 있는데 모두 방형이다. 2호 건물지는 1호 건물지의 남편에서 확인되었다. 동서방향의 석축기단 일부만 확인되었는데 1호 건물과는 계단으로 연결된다. 3호 건물은 1호 건물지의 북편에서 확인되었는데, 동-서방향의 석축기단 일부와 담장이 확인되었다(그림 8).²⁷

관청리 163번지 유적(강화군청 별관사업부지)은 후술할 관청리 145번지 유적과 인접해 있다. 유구층은 크게 3개층으로 구분된다. 상층에서는 건물과 관련된 석렬, 초석, 적심 등

이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중층에는 장축이 북동-남서방향인 건물지가 노출되었다. 건물의 잔존 규모는 정면 5칸(주칸거리 370cm), 측면 2칸(주칸거리 130cm)이며, 건물 앞쪽에는 기단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하층에서는 중소형 할석으로 축조된 석축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중층과 하층에서 고려시대 도기와 자기, 기와편, 금속유물 등이 출토되었다.²⁸ 중층의 건물지는 회랑식 건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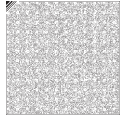
관청리 145번지 유적(강화군청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부지)은 건자산 서쪽 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기단 1개소, 축대 1개소, 석조유구 1기, 배수로 1기, 보도 등이 확인되었다. 기단과 석축은 모두 기반암을 다듬고 작은 할석을 사용하여 수평을 맞추고 장대석을 올렸다. 기단의 외면은



【 그림 9 】 관청리145번지 유구현황

27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강화 성곽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8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3, 『강화군청 별관 사업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남서향하고 있으며, 장대석으로 축조하였다. 기단의 동편에서는 장대석과 직교되는 할석열이 확인되나 상부 결실로 성격을 알 수 없다. 축대는 상기 기단 남쪽 31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며 기단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다. 기반암을 일부 삭평하여 평탄면을 조성하고 장대석 축대를 쌓았다. 축대 전면에 석조유구, 배수로, 보도 등이 확인되며, 이는 축대 상부에 건립되었을 건물과 같은 플랜하에 조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려시대 제작된 다수의 귀목문 암수막새와 명문와가 출토되었다.²⁹ 정다듬한 장대석을 사용하여 기단과 축대를 쌓았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관청리 일대 발굴에서 확인된 유구가 가장 잔존상태가 양호한 유적이다(그림 9).

이상 고고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선 지표조사에서 고려시대 유물이 다수 출토되었다고 전해지는 궁궐 일대(①), 발굴조사에서 고려시대 유구와 유물이 노출된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부지(②), 관청리 659-2번지(③), 관청리 145번지(④), 관청리 163번지(⑤) 정도이다. 이를 지역별로 구분해 보면 ①은 관청리 북서편, ②③은 관청리 중심부, ④⑤는 관청리 동남부에 해당된다. ②에서는 3동의 건물지와 함께 다수의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건물의 형태가 불분명하고 금동불상이 출토된 정황을 고려할 때 사원 혹은 제례공간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³⁰ ③에서 확인된 3기의 건물은 동일 플랜하에 동시기에 축조된 것이며, 그 평면형태가 회랑식으로 개경궁성 내에서 발굴된 회랑식 건물들과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어 지금까지 관청리에서 발굴된 유구 중 가장 권위있는 건물지로 평가된다. ④⑤에서도 석축기단과 석조, 배수구 등의 유구가 정연하게 노출되었고 막새, 명문와 등의 유물이 출토되어 권위있는 건축물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상기한 관청리 659-2번지 유구와 직선거리로 약 47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양 유적 사이에 고려시대 유구의 공지(空地)가 존재하며, 유구의 하부에서 건자산 남쪽 자락의 기

반암이 바로 노출되는 점 등으로 보아 궁궐의 일부이기보다는 궁궐 남편의 다른 건축물, 예컨대 지표조사 결과에서 언급한 건자산 주변에 위치한 최우의 사저인 진양부이거나, 사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강도궁궐의 위치와 범위

1. 강도궁궐의 위치

강도궁궐의 위치와 관련하여 『高麗史』를 비롯한 『世宗實錄地理志』,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은 고궁터(고려궁궐)가 송악리에 있다고 하였고, 『江都誌』와 『江都府誌』는 고려궁궐이 조산평(造山坪) 혹은 송악 동쪽에 있다고 하여 건자산 일대로 기록한 차이가 있다.

한편 강도궁궐의 위치에 대하여 최초로 의견을 제시한 사람은 이마니시류(今西龍)이다. 그는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에서 고려의 국도가 지금의 부성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당시 강도부성(강화산성)이 위치한 송악산 일대를 궁궐자리로 본 것이다. 이어 『續修增補江都誌』에서는 신궁이 북산 아래에 설치되었으며, 송악산 남쪽에 옛 건물의 흔적이 많이 있고, 개경 만월대와 흡사하다고 하여 송악산 남쪽을 궁궐로 보았다. 이후 이병도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강도궁궐은 송악리 즉 현재의 관청리 일대이고, 건자산 일대는 최우의 사저인 진양부가 위치한 것이라고 논증한 바 있다.³¹

이러한 강도궁궐에 대한 연구성과를 종합해 보면, 초기에는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를 궁궐터로 보았으나, 수차에 걸친 사적 '고려궁지'에 대한 발굴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과연 이곳이 강도궁궐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29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강화군청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30 개경궁성 발굴결과로 볼 때 제례공간인 경령전은 궁성의 북서편에 위치해 있다. 한편 조선 후기 고지도에는 이 유적 일대에 문묘와 사적이 표기되어 있어 이 지역이 제례와 관련된 공간이었음을 시사한다.

31 윤용혁, 2002,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 정비」 『역사와 역사교육』 7, 웅진사학회.

점은 2년여에 공사를 거쳐 완공된 강도궁궐이 발굴결과와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가 궁궐터가 아니거나, 최소한 궁궐의 중심지역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려궁궐터가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의 남편과 서남편 일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³²

필자는 앞서 개경도성과 궁성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궁성의 입지 중 가장 중요한 지형적 특징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중 궁성 내 하천은 두 줄기가 북에서 남으로 흘러 'Y'자상으로 합류되며, 이 두 하천 사이에 주요 전각이 축조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주요 전각이 위치한 곳은 주변보다 독보적 고도를 가진 구릉 위라고 하였다.³³

이렇게 볼 때 강도의 고지도 및 지적도 검토를 통해 확인된 하천과 구릉의 위치와 존재 양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궁궐이 위치하였다고 논증된 관청리 일대의 하천흐름은 크게 두 줄기이며, 이는 남쪽으로 흘러 동락천과 합수된다. 이 두 물줄기 사이 공간은 주변보다 고도가 높은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으며,³⁴ 구릉의 위치는 관청리 전체를 놓고 볼 때 북서편에 해당된다. 바로 개경궁성의 위치와 지형이 비슷한 것이다. 이러한 하천과 구릉의 존재 양상은 개경과 강화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또 관청리 일대의 지표조사 결과에 의하면, 2구역라지점에서 과거 많은 청자편이 출토되었다는 주민 제보가 있었음을 참조하여 이곳이 궁궐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³⁵ 이곳은 앞서 검토한 두 줄기 하천의 사이공간으로 구릉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이다. 이곳은 개경궁성과 비교해 볼 때 궁궐의 주요건물이 위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유적은 관청리 405번지(현재의 용흥

궁 주차장)이다. 필자가 이 유적에 주목하는 이유는 토층 양상과 내부 퇴적물이다. 이곳의 토층은 13개층으로 구분된다. 1층은 근현대층, 2층은 흑갈색점사질토층으로 조선시대층, 3층에서 13층까지는 복토층으로 흑갈색점사질층, 흑갈색점질층, 황갈색사질층, 회갈색사질층, 암갈색사질층, 황갈색사질층, 암회색사질층, 황갈색사질층, 암회색사질층, 암회색점사질층, 황갈색사질층이 순차적으로 퇴적되어 있으며, 깊이는 280cm에 이른다. 보고서에는 3층 이하 13층까지의 각 층위가 형성된 시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13층 이하에서 많은 물이 스며 나오고 있는 점으로 보아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원지반까지 굴착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4층 이하로는 모두 사질층이 퇴적된 것으로 볼 때 담수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그림 10). 특히 2,000여점에 이르는 소뼈가 집중 출토되고 있음은 반복적인 폐기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청자류가 현재 강화성당이 위치한 구릉에서 끌려 들어간 것 같다는 조사단의 견해를 참조하면 어떤 형태이던 폐기가 가능한 구덩이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여겨진다.³⁶

따라서 이 유적은 담수의 흔적이 있는 토층양상 및 다량의 동물뼈 폐기, 상부에서 하부로 끌려 들어간 청자 등 유물의 출토양상 등을 참조할 때 조선시대 이전의 연못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된다.³⁷ 필자는 이 유적과 비견되는 개경의 유적으로 동지를 지목하고자 한다.

개경의 동지는 개경궁성의 소위 '중심건축군'에서 동쪽으로 130m 떨어져 위치한다(그림 11). 동서 190m, 남북 270m 정도의 부정형이며 전체 둘레는 1,030m에 이른다. 못의 동쪽 경계는 송악산에 남으로 뻗어 내린 능선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서쪽은 송악산에서 남으로 뻗어 내린 또 다른 능선을 경계로 하고 있다. 북쪽은 황성의 북벽이 지나가고 있으며, 남쪽은 앞이 트인 골짜기의 입구가 되고 그 전면에 구정

32 이희인, 2012, 『고려 강도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33 이것은 주요 건축물의 위용을 나타내려 한 것이며, 개경궁성의 대축대와 회경전-장화전-원덕전을 이어지는 중심건축군이 그것이다.

34 이는 <도5>의 고지도상에도 표기되어 있다.

35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9,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일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강화고려궁지 학술조사보고서』, 강화군, 강화문화원.

36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 『강화 관청리 유적』.

37 소뼈의 폐기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 당시 형성된 연못과 같은 담수시설에 후대 반복적인 폐기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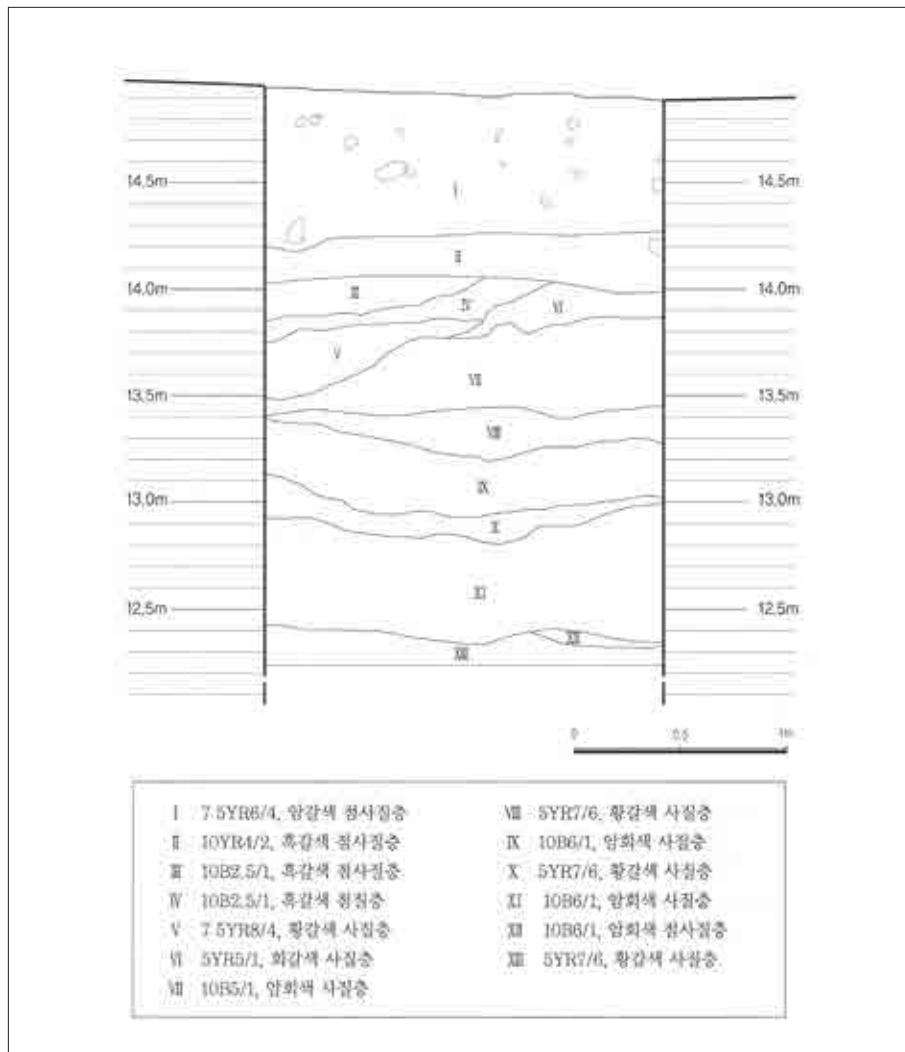


이 위치한다. 즉 못의 동서 호안은 송악산에서 남으로 뻗어 내린 두 개의 능선을 이용하고 일부 구간만 인공적으로 쌓은 상태이고, 남쪽과 북쪽은 대부분 인공으로 호안을 쌓았다. 내부 토층은 대부분 사질토층과 모래층이 교차 퇴적되어 있고 바닥에 감탕층(뽕층)이 확인된다.³⁸

이와 같이 관청리 405번지 유적은 좌우측 구릉사이에 위

치한 입지여건, 담수의 흔적을 포함한 내부토의 퇴적양상 등을 참조할 때 개경의 동지와 같은 성격의 유구로 판단된다. 이렇게 볼 때 개경의 동지가 궁궐의 동편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도공결은 바로 이 유적의 서편에 위치해 있다고 보아도 좋을 듯하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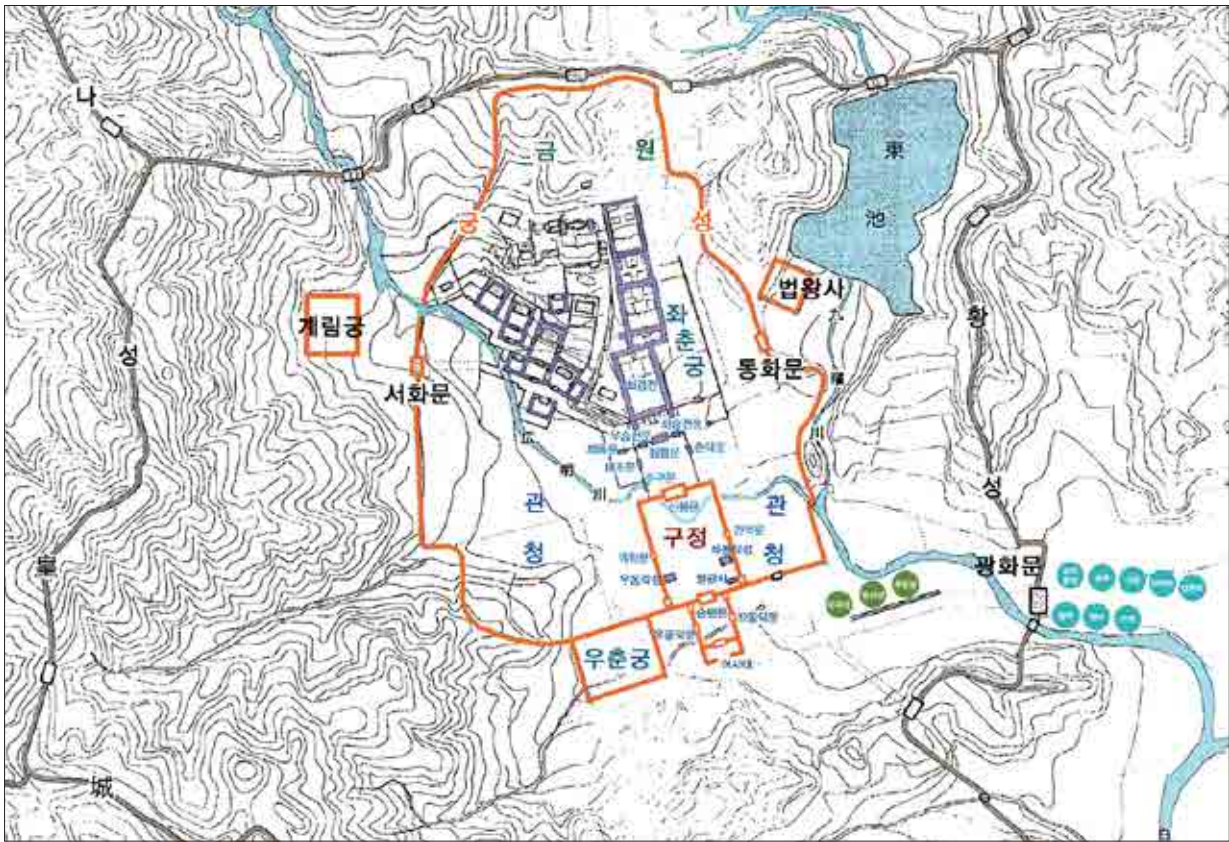
다음으로 지적도에 보이는 대형도로이다(그림 12). 이 도



【그림 10】 관청리 405번지 토층도

³⁸ 리창언, 1999, 「동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112호.

³⁹ 기록상 동지에서 각종 행사가 베풀어졌고 행사가 끝난 뒤 왕의 처소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점은 행사가 끝난 뒤 가까운 처소로 옮겨 갔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11대 문종이 동지의 용선에서 주연을 베풀며 놀다 밤중이 되어서 끝났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처소는 기록하지 않았다. 이점은 동지 가까이에 궁궐의 처소가 있었으므로 구태여 처소를 밝힐 필요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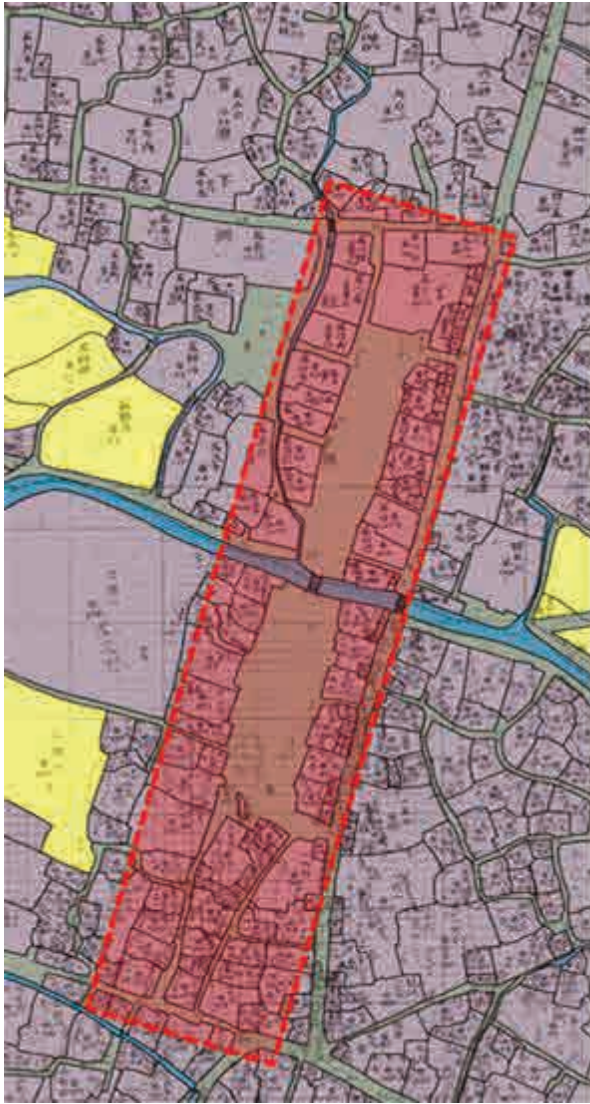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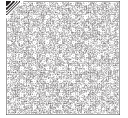
【 그림 11 】 개경동지 위치 표시도

로는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에서 시작하여 동락천을 건너 계속 남쪽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락천과 직교되는 부분 상하로 연결된 곳은 너비 30m, 길이 180m 내외 규모의 대형 도로이다.⁴⁰

이 도로는 지적도에서 확인되는 것 이상으로 남북방향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은 필지의 형태가 남북으로 일정 구획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도로의 좌우측에는 30평 내외 규모의 작은 방형 필지가 열상으로 이어져 있다. 물론 이 도로가 조선시대 강도부 남편의 대로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조선 당시인 1911년에 이미 도로의 일부가 대지로 바뀌었음으로 미루어 볼 때 이전 시기의 도로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 도로를 조선시대 강도부에서 재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이 도로는 개경의 남

대가를 포함한 남북도로와 같은 성격이며, 도로를 따라 열상으로 이어지는 소형 방형 필지는 개경의 시전과 같은 시설이 아니었을까 한다. 주지하다시피 고대도성에는 도성내 중심이 되는 주간선도로(주작대로)가 있기 마련이다. 대부분 도성에서 이 도로는 황성의 남편에서 시작되어 남문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개경은 앞서 지적하였듯이 황성이 도성의 북서편에 치우쳐 있어 이 주간선도로가 황성의 동편에 치우쳐 위치하고 있다. 강도도 개경과 지형적으로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본다. 그것은 강도가 개경을 본 따 건설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적도상의 이 도로가 남대가를 포함한 주간선도로에 해당된다면 궁궐은 이 도로 축선의 서편에 위치할 것이다.

40 이 도로는 현재의 사적 고려궁지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관청로 27번길의 좌측에 해당된다.



【그림 12】지척도(1911) 중 관청리 대형도로

다음으로 관청리 659-2번지 유적의 발굴결과이다(그림 8). 이곳에서 확인된 유구 중 1호 건물지 서단에서 2호와 3호 건물이 남북으로 이어져 있다. 이 건물지군은 개경궁성에서 확인된 높은 기단과 중심 건물을 폭이 좁은 회랑식 건물이 둘러싸는 형태의 구조와 많이 닮아 있어 궁궐 내 전각과 같은 권위 건축물로 판단된다.⁴¹ 최근 개경궁성 발굴결과를 보면

중심건축군 서편건축군의 북편 가다 건물지는 동서방향 석축대를 뒤에 두고 그 전면에 중앙건물을 두고 동서남편 3면을 회랑이 둘러싸고 있다. 이를 참조하면 관청리 659-2번지 유적에서 확인된 1호 건물지는 결국 북편에 중앙건물을 둔 남편회랑의 일부로 판단된다. 그리고 2호와 3호 건물지의 경우 건물과 건물의 사이가 좁고, 두 건물을 계단으로 연결하는 양상 등이 개경궁성의 유구양상과 흡사하다.⁴²

결론적으로 강도궁궐의 위치는 개경의 남대가와 비견되는 대형도로 남북축선의 서편이면서 동지와 비견되는 관청리 405번지 유적의 서편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으로 개경궁성과 강도궁궐의 지형 검토를 통해 확인된 현재의 궁궐일대 구릉지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지표조사 결과와도 일치한다.

2. 강도궁궐의 범위

강도궁궐의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먼저 궁궐의 규모에 대한 선학들의 연구성과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김창현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성 규모인 3,874척을 근거로 약 1,200m라는 견해를 제시하였고,⁴³ 윤용혁은 『강화부지』의 구성, 즉 강화산성 축조이전의 부성이 강도의 궁궐을 기초로 축조되었으리라는 가정 하에 구성의 둘레 1,658보를 근거로 약 2,4km로 보고 김창현의 견해와 본인의 견해를 조정하여 약 2km정도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⁴⁴ 이희인은 구성(옛 강화부성)이 궁궐을 토대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성의 둘레를 기준으로 궁궐의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궁궐의 규모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성의 길이 3,874척, 즉 1,200m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였다.⁴⁵ 필자는 강도궁궐이 전란 중에 급하게 축조되었음을 고려할 때 둘레가 2,170m인 개경궁성보다 작았음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41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2, 『강화 성곽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추가발굴조사 보고서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42 개경궁성 발굴결과에 따르면, 궁성 내 가~다 건물군은 서로 맞닿아 있고 건물과 건물의 사이의 너비 100cm내의 좁은 공간은 배수로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건물과 건물은 계단과 석고 등으로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다(이상준, 2009, 『개성 고려궁궐(만월대)의 발굴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한국중세사학회 제74회 연구발표회).

43 김창현, 2003, 『강화의 왕도경영』, 『신면 강화사』, 강화군 군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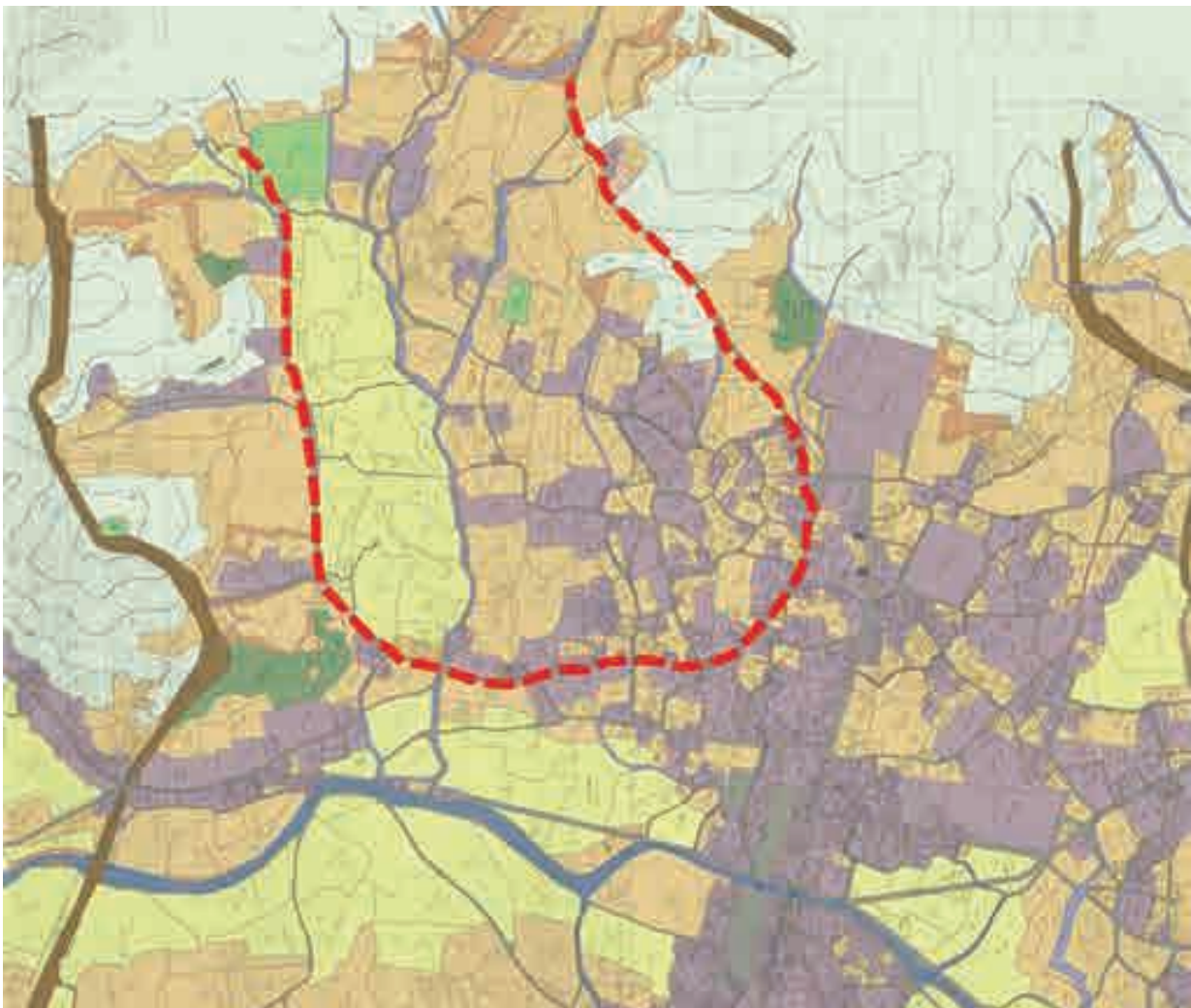
44 윤용혁, 2005, 『고려도성의 성곽 연구』, 『국사관논총』, 106.

45 이희인, 2012, 『고려 강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p75.

강도궁궐의 평면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자료는 강도의 고지도가 있다. 강화의 고지도 중 강화산성을 쌓기 이전에 그린 영남대박물관 소장 『강화전도(1684년)』, 개인소장 『강화지도(1696년경)』,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강화도지도(18세기초)』 등에는 부성의 형태가 원형으로 그려져 있다. 이 성이 『강화부지』에 등장하는 이른바 구성(舊城)으로 판단된다. 윤용혁은 이 구성이 고려조의 내성에 근거한 것으로 추정하였고,⁴⁶ 이희인은 옛 부성의 범위는 강도 중심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궁궐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⁴⁷ 결국 1711년 이전에 그려진 부성은 고려조의 궁궐을 바탕으로 축조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평면형태가 원형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경궁성의 평면은 주머니 모양이다. 강도궁궐도 이와 비슷한 형태라고 가정한다면 전술한 고지도에 보이는 원형 궁궐과 같이 궁궐의 하단부가 호상의 라인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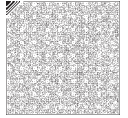
이와 같은 평면형태를 염두에 두고 1911년 제작된 지적도



【 그림 13 】 강도궁성 범위 표시도

46 윤용혁, 2005, 「고려도성의 성곽 연구」, 『국사관논총』106.

47 이희인, 2012, 「고려 강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p73.



를 검토해 보면 궁궐 범위에 대한 일단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앞서 궁궐 위치로 비정한 궁궐일대에 하단이 호상으로 휘어지는 주머니 모양의 도로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 도로의 서편경계는 현재의 향교길이며, 동편경계는 현재의 '고려궁지' 서편, 그리고 남편은 농협전면 동서 도로이며, 북편은 송악산 자락이다. 이와 같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비정궁궐의 남편에서 도로가 호상으로 휘어져 연결되고 있음은 성벽과 같은 지장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그림 13).

이렇게 볼 때 앞서 궁궐의 위치에서 언급한 독보적 고도의 구릉이 이 범위의 중앙부분에 돌출되고 있으며, 지적도상의 대형도로 북단이 이 범위의 동남하단에서 마무리되고 있어 개경궁성과 유사하다. 그리고 유구의 노출상태로 보아 궁궐 내 전각의 일부라고 판단한 관청리 659-2번지 유적이 이 범위 내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때 강도궁궐의 둘레는 1,500m정도이다.

맺음말

강도는 구정, 궁전, 사사의 이름을 송도에 따랐고, 팔관·연동·행향·도장을 구식으로 하였을 만큼 개경을 모방하여 건설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이병도는 개경과 동일한 이름의 송악산이 강도에 있으며, 그 형세가 개경의 송악산과 비견된다는 점을 들어 강도궁궐의 위치를 송악산 남쪽의 현재 '고려궁지' 일대로 비정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고려 당시 강도를 개경의 모습과 같이 경영하려는 강한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구정과 궁전의 이름을 개경궁성과 같이 하였다고 함은 그 구조도 그대로 따랐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강도궁궐의 위치를 현재의 '고려궁지' 일대로 비정한 것에 대해 별다른 비판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점은 강도궁궐의 위치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995년부터 2008년까지 수차에 걸친 사적 '고려궁지'에 대한 발굴결과, 고려시대 유구가 전혀 확인되지 않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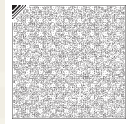
해서 과연 이곳이 고려궁궐일까 하는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필자도 이러한 강도궁궐에 대한 기존의 위치비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 의문을 풀기 위해 앞서 지적한 개경도성과 궁성의 특징을 강도에 적용해 보려 하였다. 그 결과 개경궁성의 위치가 도성의 북서편에 치우쳐 있고, 도성의 남북중심축선인 남북 중간선도로(남대가)의 서편, 그리고 황성 내 원지인 동지의 서편에 위치함을 알 수 있었고, 구조적으로는 중앙부에 탁월한 고도의 구릉이 남북방향으로 돌출되어 있고, 두 줄기의 하천이 이 구릉지를 감싸고 흘러 주류하천에 연결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개경궁성의 특징을 강화에서 찾고자 고지도, 지적도, 고고자료를 검토하였다.

발굴결과 확인된 관청리 405번지 유적은 개경의 동지와 같은 성격의 연지일 가능성이 높고, 지적도에서 확인된 너비 30m에 이르는 대형도로는 남대가일 가능성을 언급하였다. 그렇다면 강도궁궐은 이 두 시설물의 서편에 위치하였을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강도궁궐의 위치는 강도도성의 북서편이면서 상기 두 시설물의 서편에서 확인하여야 하며, 이 서편 지역 중 돌출 구릉을 가진 현재의 궁궐 일대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궁궐의 범위는 지적도에 보이는 호상의 도로가 고지도에서 보이는 구성(궁궐)의 모습과 닮아 있으며, 토축의 궁성벽이 퇴락하면서 도로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이 호상도로의 내부로 판단하였다.

참고문헌

- 『江都府誌』
- 『江都誌』
- 『高麗史』
- 『高麗史節要』
-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
- 『世宗實錄地理志』
- 『續修增補江都誌』
- 『新增東國輿地勝覽』
- 『신편 강화사』
- 『中京誌』
- 강화군, 2008, 『江華 옛地圖』
- 겨레문화유산연구원, 2011, 『조선궁전지Ⅱ』
- 계림문화재연구원, 2012, 『강화군청길 노외주차장 조성사업부지 내 유적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3, 『고려도성 기초학술연구Ⅰ』
- 김기덕, 2009, 『강도궁궐의 입지와 개경궁궐의 풍수 비교』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보고서』, 강화군·강화문화원
- 김창현, 2005, 『고려시대 강화의 궁궐과 관부』 『국사관논총』 106
- 김창현, 2004, 『고려 개경과 강도의 도성 비교 고찰』 『한국사연구』 127
- 리창언, 1999, 『동지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제112호
- 박성진, 2011, 『고려궁성의 형성과 변화에 대한 고고학적 검토』 『고려수도 개경과 동아시아의 도성문화』, 국립문화재연구소
- 서경문화재연구원, 2010, 『인천 강화군 강화여고 기숙사 증축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개략보고서』
- 윤용혁, 2010, 『고려도성으로서의 강도의 제문제』 『한국사연구』 40, 고려사학회
- 윤용혁, 2005, 『고려도성의 성곽 연구』 『국사관논총』 106
- 윤용혁, 2002, 『고려시대 강도의 개발과 도시 정비』 『역사와 역사교육』 7, 웅진사학회
- 이병도, 1948, 『고려시대의 연구』 을유문화사
- 이상준, 2009, 『개성 고려궁궐(만월대)의 발굴성과와 과제』 『한국중세사 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모색』, 한국중세사학회 제74회 연구 발표회
- 이희인, 2012, 『고려 강도 연구』, 성균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 한강문화재연구원, 2009, 『강화 관청리 유적』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3, 『강화군청 별관 사업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2, 『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내 문화유적 추가발굴조사 보고서 -전문가 검토회의 자료-』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11, 『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 한국문화유산연구원, 2009,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일원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강화 고려궁지 학술조사보고서』, 강화군·강화문화원
- 한국사연구회, 2003, 『고려의 황도 개경』, 창작과비평사
- 한국역사연구회, 2007, 『개경의 생활사』, 휴머니스트
- 한림대박물관, 2003, 『조선 궁전지 발굴조사보고서』



The Location and Range of Goryeo Palace in Gangwha

Lee Sang-jun

Naju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Abstract

Gangwha was a capital city of Goryeo, in spite of short-term occupation, where various national facilities such as palace stood in a row. Nevertheless, its historic importance has been undervalued owing to undiscovered palace.

According to 《Goryeosa》, palace in Gangwha was built in imitation of that of Gaegyeong. If it is true, the site of the old palace in Gaeseong as an original could give significant information for that of Gangwha. The distinct feature of Gaegyeong is that the palace was located in the west area of the centerline from north to south and pond lay in the east side. There is a mountain in the center of capital and two rivers runs along side the mountain.

Gunggol at Gwancheong-ri is a best place where structural peculiarities of Gaegyeong can be applicable to Gangwha. There is an area of celadon distribution and is some topographic similarities such as central mountain, two rivers are quite similar. It is assumable that excavation result of no. 405 Gwancheong-ri reflects the function of east pond and thoroughfare responds to main street from north to south of Gaegyeong. After all the analysis from archaeological information, old maps, cadastral maps, topographic similarities and so on, Gunggol at Gwancheong-ri within an arc shape road is a most suitable place as palace in Gangwha.

Key Words Gangwha, Palace in Gangwha, Palace in Gaegyeong, Gunggol